



신안 섬초, 냉동나물과 조리법 개발 선보여

2018년
10월 넷째주

주간 전남농업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October

VOL. 206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업기술원, 양파
노균병 육묘기부터
철저히 방제해야

정책동향

저품질위과 가공지원으로
농가 소득보전 추진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6~13도, 최고기온 : 18~21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과일류 관측
- ▶ 과채류 관측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4

- ▶ 여수 농수특산물 미국 LA 한인축제서 우수성 증명
- ▶ 농촌진흥청, GSP 토종닭 키르기스스탄 수출 재개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6

- ▶ 전남농업기술원, 신안 섬초 냉동나물과 조리법 개발 선보여
- ▶ 전남농업기술원, 양파 노균병 육묘기부터 철저히 방제해야
- ▶ 고품질 쌀 생산, 벼 익는 시기의 온도가 중요해요
- ▶ 맥류 이모작하면 잎집무늬마름병 발생 줄어요
- ▶ 토란 줄기 껍질 제거기 영농 현장 목소리로 개발
- ▶ 국산 종균 이용해 팔로로 메주 쏜다
- ▶ 비 올 때는 사과 따지 마세요
- ▶ 소중한 가축, 세계에서 인정받으세요

6. 정책 동향 24

- ▶ 저품위과 가공지원으로 농가 소득보전 추진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5

- ▶ 여수시,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
- ▶ 나주시, 추황배 수확 개시
- ▶ 담양군, 고품질 담양한우를 위한 종축개량 박차
- ▶ 고흥군, 남녀 모두에게 좋은 고흥 석류 수매 한창

8. 해외 농업정보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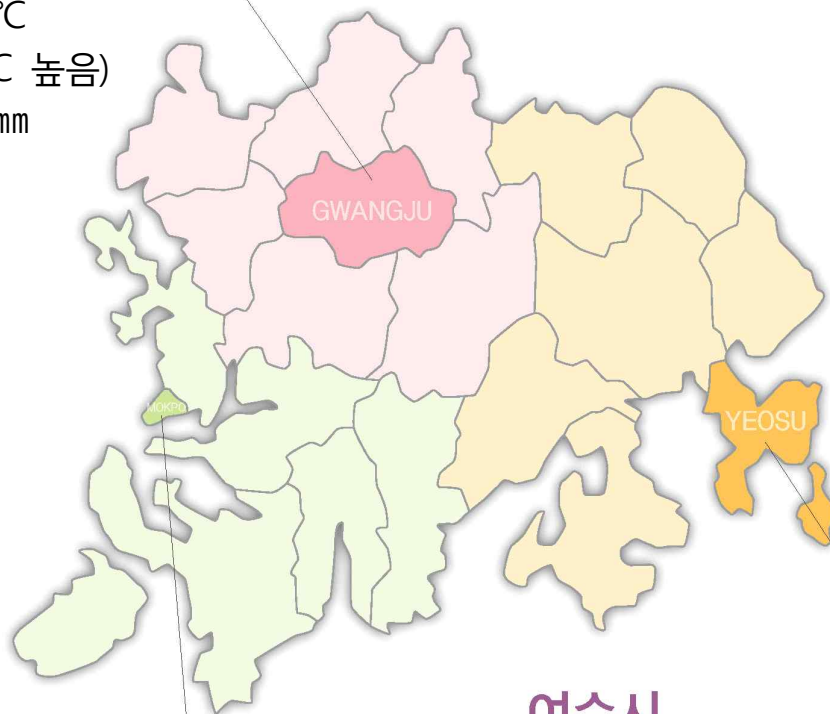
- ▶ 일본,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샤인 머스캣의 인기
- ▶ 홍콩, 일본산 농식품 수입 가장 많아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10. 22. 시카고 선물거래소)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33

- ▶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 ▶ 2018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 개최
- ▶ 청렴한세상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13.8℃
(평년대비 1.5℃ 높음)
- 최고기온 : 19.9℃
(평년대비 0.3℃ 높음)
- 최저기온 : 8.8℃
(평년대비 1.7℃ 높음)
- 강 수 량 : 1.3mm



목포시

- 평균기온 : 14.8℃
(평년대비 1.6℃ 높음)
- 최고기온 : 20.3℃
(평년대비 0.1℃ 낮음)
- 최저기온 : 10.6℃
(평년대비 0.8℃ 높음)
- 강 수 량 : 1.2mm

여수시

- 평균기온 : 15.4℃
(평년대비 1.1℃ 높음)
- 최고기온 : 19.4℃
(평년대비 0.6℃ 높음)
- 최저기온 : 12.1℃
(평년대비 1.0℃ 높음)
- 강 수 량 : 1.2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과일류 관측 - 감귤을 제외한 주요 과일 10월 출하량 감소 전망

* 감귤을 제외한 주요 과일 10월 출하량 감소 전망

10월 출하량 전망 (전년 대비 증감률)



2018년 생산량 전망 (전년 대비 증감률)



10월 가격전망 : 주요 과일 가격 전년 대비 상승

- 사과(양광)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3만 5천 ~ 3만 8천 원/10kg
- 배(신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만 9천 ~ 3만 2천 원/15kg
- 감귤(노지온주)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1,200 ~ 1,500원/kg
- 포도(캠벨얼리)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만 7천 ~ 1만 9천 원/5kg
- 단감(부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만 7천 ~ 2만 9천 원/10kg

10월 생산량전망 : 2018년 주요 과일 생산량 전년 대비 감소

- 사과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14% 감소 전망
-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20% 감소 전망
- 노지온주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하나,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2% 증가
- 포도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13% 감소 전망
- 단감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8% 감소 전망
- 2018년 주요 과일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감률

사과	배	노지온주	포도	단감
-14.2%	-19.7%	2.3%	-12.9%	-7.5%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과채류 출하량 감소로 10월 가격 높을 전망



10~11월 정식의향 (전년 대비 증감률)

일반토마토	대추형 방울토마토	백다다기오이	취청오이	청양계꽃고추	일반꽃고추	애호박	수박	딸기
10월 6%	2%	2%	3%	12%	12%	11%	5%	1%
11월 -3%	-1%	1%	-1%	6%	2%	0.1%	-6%	-

10월 가격전망 : 주요 과채류 출하량 감소로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35,000 ~ 39,000원/10kg
- 대추형 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6,000 ~ 19,000원/3kg
- 취청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18,000 ~ 21,000원/50개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36,000 ~ 40,000원/100개
- 청양계פות고추 가격은 출하량 감소하나, 전년과 비슷한 36,000원/10kg 내외
- 일반פות고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9,000 ~ 33,000원/10kg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9,000 ~ 11,000원/20개
- 수박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1,600 ~ 1,900원/kg

정식의향

- 10~11월 백다다기오이 · 청양계פות고추 · 일반פות고추 정식면적 증가 전망
- 10월 일반토마토 · 대추형 방울토마토 · 취청오이 · 수박 정식면적 증가, 11월은 감소 전망
- 10월 애호박 · 딸기 정식면적 증가 전망
- 과채류 10~11월 정식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분	토마토		오이		פות고추		애호박	수박	딸기
	일반	대추형 방울	백다다기	취청	청양	일반			
10월	5.6	2.0	2.1	2.5	11.9	12.3	10.7	4.7	0.9
11월	-2.8	-1.0	0.7	-0.6	6.4	1.5	0.1	-5.9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8. 10. 22. 기준 / 단위 : 원)

식량작물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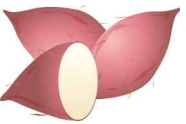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20kg	46,380	46,380	↑	2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785	37,050	38,397	↑	20.8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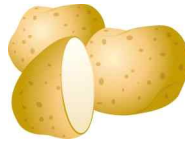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35kg	187,200	180,800	↑	7.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8,900	173,500	155,233	↑	20.6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10kg	34,800	34,800	↑	4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600	24,600	22,147	↑	57.1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20kg	45,400	45,400	↑	6.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200	42,750	23,427	↑	93.8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10kg	8,200	8,066	↑	46.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050	5,600	5,133	↑	59.8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8kg	10,600	9,500	↑	7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200	6,200	4,781	↑	121.7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100개	43,333	37,000	↓	1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167	52,333	39,785	↑	8.9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20개	20,000	15,600	↑	26.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500	15,800	16,090	↑	24.3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60kg	1,232,000	1,232,000	↓ 1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03,250	1,405,000	790,000	↑ 55.9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10kg	41,000	38,8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3,350	33,600	32,253	↑ 27.1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20kg	130,000	120,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0,000	-	-	-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20kg	14,500	14,800	↓ 4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150	25,250	21,403	↓ 32.3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20kg	60,800	60,200	↑ 1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8,150	52,800	41,147	↑ 47.8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1kg	2,000	2,380	↑ 24.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90	1,610	1,539	↑ 30.0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5kg	37,600	29,400	↑ 4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350	26,600	25,573	↑ 47.0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1개	16,200	17,200	↑ 4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400	10,900	8,867	↑ 82.7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10kg	42,200	42,800	↑ 59.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850	26,400	27,280	↑ 54.7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5kg	30,400	37,000	↑ 4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450	21,150	17,903	↑ 69.8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10kg	38,000	-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	-	-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15kg	38,000	36,400	↑ 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650	37,300	34,787	↑ 9.2

포도(거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2kg	15,000	14,400	↑ 3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400	11,350	8,998	↑ 66.7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30kg	498,400	498,400	↓ 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600	505,500	524,133	↓ 4.9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2kg	11,800	11,400	↓ 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600	11,950	12,357	↓ 4.5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2kg	7,200	7,000	↓ 1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100	8,050	8,230	↓ 12.5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100g	8,357	8,540	↓ 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307	8,451	7,525	↑ 11.1

닭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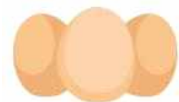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1kg	5,191	5,168	↑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34	4,988	5,502	↓ 5.7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100g	2,066	2,033	↓ 5.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06	2,192	1,917	↑ 7.8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30개	5,324	5,484	↓ 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582	5,479	5,659	↓ 5.9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2)	1주일전 (10/15)	전년대비	
1L	2,621	2,620	↑	4.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0	2,516	2,537	↑	3.3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10. 22. 기준 / 단위 : 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805	5,790	5,595	↑ 0.3	↑ 3.8	
	거세	6,541	6,780	6,428	↓ 3.5	↑ 1.8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38	3,208	3,184	↑ 0.9	↑ 1.7	
	수	4,007	4,079	3,716	↓ 1.8	↑ 7.8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702	3,738	2,96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0	↑ 25.0

젖소수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89	275	11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1	↑ 153.5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5	365	36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8.2	↓ 6.9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596	1,614	1,42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1	↑ 11.8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277	1,125	1,18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3.5	↑ 7.6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433	2,419	2,66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6	↓ 8.7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여수 농수특산물 미국 LA 한인축제서 우수성 증명

- 거문도해풍숙영농조합 등 3개 업체는 새 해외판로도 개척 -

- 여수 농수특산물이 미국 LA 한인축제에서 인기를 끌며 우수성을 증명했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에 따르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린 한인축제장터에 참가한 여수지역 농수특산물 업체가 3억 6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 특히 거문도해풍숙영농조합 등 3개 업체는 미국 LA 한남체인 수출을 확정하고, 한남체인 4개 지점에 특산물을 판매하는 해외 판로 개척 성과도 거뒀다.
- 한남체인은 내년 여수특산품전 행사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여수특산품전이 개최되면 더욱 많은 지역 특산물 업체의 해외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여수시



농촌진흥청, GSP 토종닭 키르기스스탄 수출 재개

- 20일, 씨알 2만 개 보내... 수출 전진 기지 확장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중단됐던 골든 시드 프로젝트(이하 GSP) 종축사업단의 『GSP 한협토종닭』 수출을 2년여 만에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 GSP 한협토종닭은 주식회사 한협원종과 국립축산과학원, 학계가 함께 개발한 닭으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에 등재가 확정된 우리 토종닭 품종이다.
- 이번에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물량은 씨알(종란) 2만 개로, 10만 달러 상당이다.
- 병아리가 아닌 씨알을 수출하는 이유는 운송 과정에서 폐사율을 낮추고, 물류비용도 적게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수출된 씨알은 현지 씨닭 농장에서 2대에(씨알 → 씨닭 → 고기용 닭, 달걀) 걸쳐 생산한 뒤, 약 60주 후 고기용 닭이나 달걀로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 키르기스스탄은 다른 육류보다 닭고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 나라로 수출 가능성도 높다. 이에 우리나라는 키르기스스탄을 씨닭 사업의 수출 전진 기지로 구축하고 있다.
- 2015년 토종닭 수출 위생검역 협정을 맺은 데 이어 2016년에는 토종닭 씨알 9,600개를 수출했다.
- 우리나라 토종닭은 키르기스스탄 현지 닭보다 성장이 빠르고 육질과 육수 맛이 좋다는 평을 받으며, 현재까지 8만 8천 달러어치가 판매됐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 신안 섬초 냉동나물과 조리법 개발 선보여

- 섬초 냉동나물 이용 어린이 간식 밀크잼, 식빵, 스콘 등 개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도 특산물인 신안 섬초의 연중 판매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냉동나물 시제품을 개발하고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 조리법 5종을 선보였다.
- 섬초는 전남 신안군을 중심으로 주로 겨울철에 생산되는 시금치로 일반시금치에 비해 잎이 두껍고 단맛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무기질 중 칼슘과 철분 함량이 풍부하여 발육기의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 그러나, 수확시기가 11월부터 이듬해 3월로 짧고, 저장성이 낮아 연중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 이번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섬초 냉동나물은 수분함량을 80%로 조정하여 -20℃에서 저장 후 필요시 냉수에 자연 해동하여 각종 요리에 사용했을 때 수확 직후 섬초와 가장 질감이 유사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개발된 냉동나물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영양간식 섬초 식빵, 찐빵, 밀크잼, 스콘, 스프 조리법을 개발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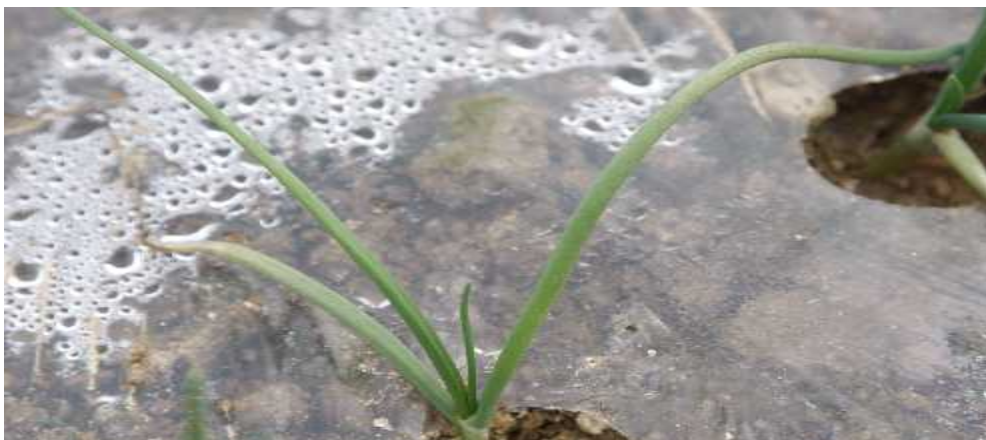


전남농업기술원, 양파 노균병 육묘기부터 철저히 방제해야

- 10월 중순부터 감염되기 시작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양파를 재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노균병을 예방하기 위해 육묘기부터 철저히 방제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 전남의 양파 재배면적은 11,327ha로 전국 생산량의 36.7%를 차지하는 주요 작물이지만 노균병 발생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 양파 노균병은 1차 감염과 2차 감염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감염은 육묘 중에 감염된 묘를 심었거나, 겨울 동안 토양에 있던 병원균이 잎에 묻어서 발생하게 된다. 2차 감염은 2월에 낮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면 1차 감염주에서 증식한 병원균에 의해 발생된다.
-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묘예정지를 반드시 소독해야 하며, 태양열소독법과 약제방제법이 있다. 태양열소독법은 온도가 높은 시기에 약 1개월간 토양에 비닐을 덮고 토양 내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 약제방제는 육묘상에서 부터 실시하는데, 정식 직후에도 계통이 다른 적용약제 3종을 10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하여 1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또한 월동 후 2차 감염이 시작되는 2월 하순부터 6회에 걸쳐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김효정 연구사는 “양파 노균병은 1차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면 2차 감염이 더욱 심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재배초기부터 후기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고품질 쌀 생산, 벼 익는 시기의 온도가 중요해요

- 최적 조건 맞추기 위해 지역 및 지대별 모내기 시기 조절 필요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여름철이 길어지고 벼 익는 시기에 높은 온도로 인해 쌀 품질이 떨어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역과 지대별로 알맞은 모내기 시기를 제시했다.
- 연구 결과, 중부 지역은 평야지 5월 20일 ~ 6월 14일, 중간지 5월 15일 ~ 30일, 호남 지역은 평야지 6월 4일 ~ 18일, 중간지 5월 16일 ~ 6월 10일, 영남 지역은 평야지 6월 1일 ~ 20일, 중간지 5월 23일 ~ 6월 6일이 각각 모내기에 적절한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벼 알곡이 익는 기간 중 온도에 따른 품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품질 쌀 생산에 최적인 조건은 이삭이 팎 후 40일간 평균 온도가 22℃일 때였다.
- 이 조건에서 1℃가 오르면 현미 천립중(현미 천알의 무게)이 3.2%, 완전미율이 3.0%, 밥맛이 6%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막으려면 지역 및 지대별 모내기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벼는 익는 동안 이삭에 전분이 축적되면서 무거워지고 품질도 좋아진다. 이 기간 동안 온도가 높으면 효소의 활력이 떨어져 전분 축적 및 이삭 무게가 줄고 쌀 내부에 빈 공간이 늘어 불투명한 색을 띤다. 밥을 지어도 무르고 맛도 떨어진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오명규 과장은 “국내 주요 벼 재배 지역의 온도 변화와 온도에 따른 벼 품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고품질 쌀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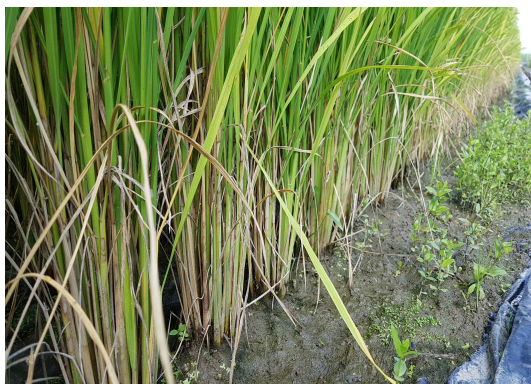


맥류 이모작하면 앞집무늬마름병 발생 줄어요

- 벼만 심은 논보다 최고13% 발병 적어... 농가 활용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논에 보리나 밀을 심어 겨울을 나면 벼만 심은 논에 비해 앞집무늬마름병이 덜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벼 앞집무늬마름병 균은 병에 걸린 벼의 줄기에서 자라나 균핵을 만들고 땅에 떨어져 겨울을 난다. 이후 봄에 물을 대고 써레질을 할 때 건강한 벼의 줄기를 타고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
- 연구 결과, 지난해 벼만 심었을 때 앞집무늬마름병 발생 비율은 22%였으나, 보리를 이모작 했을 때는 약 15%로 낮아졌다. 올해는 벼만 심은 경우 발병률이 17%였지만, 보리 이모작에서는 4%로 낮아져 발병률 차이는 더 커졌다.
- 이는 이모작 준비를 위한 흙갈이 같은 농작업을 거치면서 땅 위로 드러난 균핵이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시험 재배지 내 앞집무늬마름병 발생 모습(왼쪽: 벼 단작, 오른쪽: 벼+ 청보리 이모작)〉



토란 줄기 껍질 제거기 영농 현장 목소리로 개발

- 토란 재배 농업인 아이디어 제공... 시간·노동력 91.7% 절감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전남 곡성의 토란 재배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토란 줄기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 전남 곡성 토란 생산량 2,203톤(전국 생산량의 74%)

- 토란은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구근뿐만 아니라 줄기도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작물이다. 토란 줄기를 나물로 먹기 위해서는 줄기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져 나물용 토란 줄기 생산량은 적었으며, 상당한 양의 토란 줄기가 버려져 왔다.
- 이에 전남 곡성에서 토란을 재배하는 권순택 농업인이 토란 줄기 껍질 벗기는 기계를 고안했으나 제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아 농촌진흥청에 개선을 요청했다.
- 권순택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토란 껍질 벗기기 - 세척 - 절단 등 모든 과정이 가능한 기계를 개발했다.
- 개발된 기계를 이용할 경우, 1시간에 120kg의 토란 줄기 껍질을 벗길 수 있어 인력으로 할 때(10kg/1시간)보다 91.7%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내년부터 영농 현장에 보급하고 토란 잔뿌리 제거기 등도 추가 개발해 토란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개발한 토란대 박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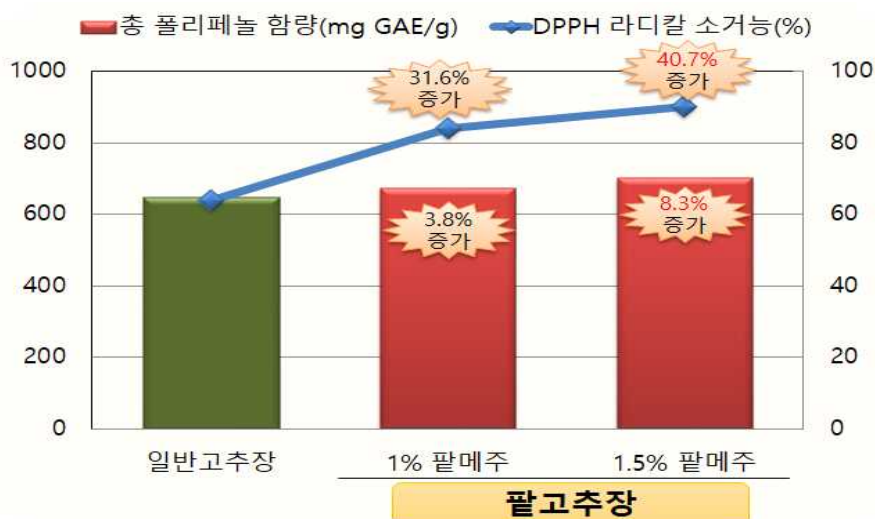
박피된 토란 줄기

국산 종균 이용해 팔로 메주 쏜다

- 장류용 종균 NY12-2 확보... 제조 기간 줄고 구수한 맛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장류용 국산 발효 종균을 확보하고, 옛 조리서에 실린 별미장 팔 고추장 제조 기술을 현대화했다.
- 이번에 개발한 토착 종균 바실러스 아밀로리퀴파시엔스 NY12-2는 한식 전통장에서 분리한 것으로 항균 능력이 높다.
- 콩과 팥을 4:3 비율로 넣고 이 종균으로 만든 팔 메주를 발효시킨 결과, 단백질 분해력이 높아져 발효 기간이 3일이던 기존 메주에 비해 1일로 짧아졌다.
- 또한, 구수한 맛의 척도인 아미노태 질소 함량도 약 4배 증가했다.
- 팥을 첨가한 팔 메주로 만든 고추장은 콩 메주로 만든 일반 고추장보다 항산화 활성과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팥의 첨가량을 늘릴수록 항산화력은 기존보다 최고 41%, 총 폴리페놀 함량은 3.8 ~ 8.3% 높았다.
- 아울러, 농식품 산업체에서 종균과 제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하고, 보급을 위해 종균생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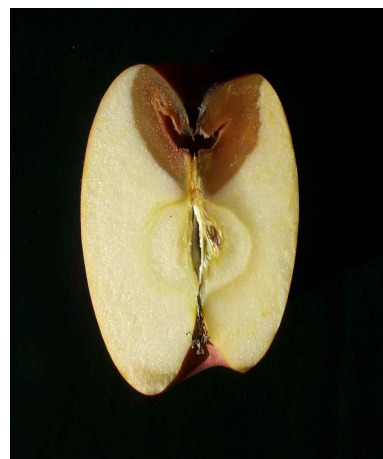
〈팥 고추장의 기능성 증진 효과〉

비 올 때는 사과 따지 마세요

- 역병 전염으로 유통 중 썩을 수 있어... 충분히 말려 출하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비 오는 날 사과를 따면 역병 전염으로 유통 중 과실이 썩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사과 역병은 재배 중에도 나타나지만 수확한 과실을 유통, 저장하는 중에도 발생해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주요 병해다.
- 흙 속에 사는 사과 역병균은 주로 비가 내릴 때 빗방울에 튕 흙이 나무 아래쪽에 낮게 열린 과실을 썩게 한다. 병원균의 생태적 특성으로 물이 많은 환경에서 쉽게 확산하므로 비가 많이 내린 해에 잘 발생한다.
- 감염된 과실은 진한 갈색 또는 회갈색의 병반이 원형 혹은 일정하지 않은 모양으로 퍼진다. 병 발생 부위와 발생하지 않은 부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뜨거운 물에 데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사과 수확 기간에 비가 내리면 토양 내에 역병균 발생이 늘고, 수확을 하다 땅에 놓았던 도구를 다시 사용하거나 흙탕물이 과실에 닿으면 병원균 전염되거나 병 발생이 증가한다.
- 시장 출하시기에 맞춰 불가피하게 비가 올 때 수확을 해야 한다면 도구는 흙이 있는 바닥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 수확한 과실은 가급적 충분히 말린 후 출하하는 것이 좋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사과 재배, 유통 및 저장 중 역병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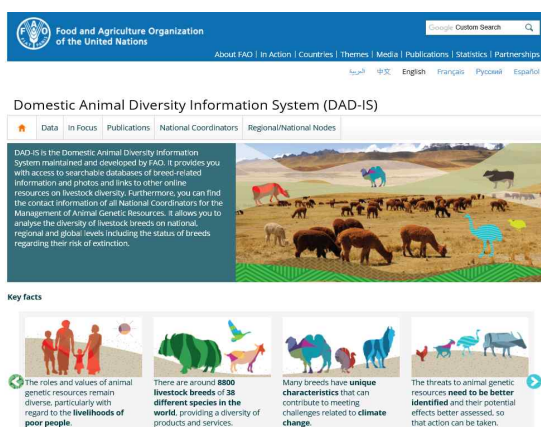
소중한 가축, 세계에서 인정받으세요

- 가축유전자원시스템 등록 후보 가축, 11월 9일까지 모집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할 후보 대상 가축을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은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와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시스템이다.
- 현재 198개 나라의 38개 축종에 대한 1만 5,008품종의 정보가 등록돼 있으며, 우리나라 가축은 15개 축종 107품종이 등록돼 있다.
- 시스템 등록은 가축유전자원 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자원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 신청 대상은 가축생명자원(생축)을 보유하는 농업인과 기업이다.
- 축산법에서 정의한 가축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육성한 외국 품종도 신청할 수 있다.
- 재래종은 가축 소유권과 사육 기록을 입증할 자료를, 국내 육성품종은 자원 소유권과 육종 과정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증빙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 (국립 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또는

전자우편(angrs@korea.kr) 으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http://www.nias.go.kr> → 축산소식 → 소식 및 행사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가축유전자원센터 (☎ 063-620-3520, 3522)로 하면 된다.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

* 출처 : 농촌진흥청

저품질과 가공지원으로 농가 소득보전 추진

- 농식품부는 금년에 수확된 저품질 과일 중 크기가 작고, 모양이 고르지 못해 상품성이 낮은 물량을 대상으로 가공용 구매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농가수취가격은 20kg당 8천 원이며, 가공업체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며, 가공업체 공급가격은 수입산 과일 농축액을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산정하였다.
- 가공용 구매 신청물량은 17천 톤(사과 13.9, 배 2.9), 소요예산 67억 원 규모이며, 신청물량 중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부터 13천 톤을 우선 구매할 예정이다.
- 구매기간은 중생종(홍로) 및 만생종(후지) 수확시기 등을 감안하여 '18년 11월말까지 우선 추진한다.
- 태풍 낙과 피해과의 가공용 구매기간은 '18. 10. 15. ~ 11. 9.(20일간)까지 실시하며, 태풍 피해농가 소재 지역 농협, 지자체를 통해 구매를 실시한다.
- 지원규모는 50백만 원이며, 지원단가는 상자 당(20kg) 2천 원이 정액 지원된다.
- 또한, 농식품부는 추석에 판매되지 못한 중·소과 사과(홍로)의 재고 누적에 따른 만생종(후지) 가격 하락 예방을 위해 잔여 물량에 대해 할인판매 행사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착한가격에 공급되는 국산과실 소비확대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지원규모는 전국 농가 재고물량 약 600톤을 대상으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0. 15. ~ 10. 31. 까지 보름간 농협 전국 계통매장을 통해 할인판매(1천 원/2kg봉지) 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여수시,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

- 올해 10월까지 39톤 공급... 광합성균·고초균 등 4종 -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유용미생물(EM)을 연중 생산·공급해 친환경농업 구축과 악취제거 등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과 축산농가 등에 공급한 유용미생물은 39톤에 이른다.
- 시는 친환경인증 농가와 축산 농가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일반농가와 시민에게는 리터당 300원(타지역 1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 공급종류는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 4종으로 사용이 쉽도록 소포장해 제공한다.
- 광합성균은 악취와 유해가스를 줄여주고, 고초균은 유해균을 억제한다. 유산균은 작물 뿌리발근 촉진에, 효모균은 토양개량과 생장물질 분비에 효과가 있다.
- 시 관계자는 “생활환경 분야에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유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클로렐라 배양 기술을 도입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여수시

나주시, 추황배 수확 개시

- 과즙풍부, 고당도에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 올해 1,300톤 수확 예상 -

- 전남 나주시의 대표 특산물 나주 추황배 수확이 이주부터 본격 시작됐다.
- 추석 전후로 중생종인 신고배의 집중 출하시기가 지난 후 수확하는 만생종 추황배는 올해 폭염 날씨로 인해 평균 숙기인 10월 20일보다 5일 정도 앞당겨졌다.
- 추황배는 1985년 농촌진흥청 배연구소가 육성한 우리나라 품종으로 험상궂은 생김새에 검은 반점이 있어 못생긴 배로 불린다.
- 겉모습과는 달리 과즙이 풍부하고, 특히 당도가 높아 신맛과 조화를 이뤄 새콤달콤 먹는 맛이 일품이다.
- 농가별 편차는 있지만 측정결과 평균 13°Brix의 당도가 함유된 것으로 나왔다. 아울러 추황배에는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성분이 다량 함유돼있어, 건강과일로도 인기가 높다.
- 시에 따르면, 올해 추황배 수확량은 약 1,300톤으로 예상된다. 전체 과수농가 배 생산량의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내 고유 품종인 추황은 과실 크기가 작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최근 소비시장의 구매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기 품종”이라며, “무지베렐린 배 육성, 대과위주의 생산 절감, 신품종 개발 등 명품 나주배 육성 정책에 힘써 농가 소득증대와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나주시



담양군, 고품질 담양한우를 위한 종축개량 박차

- 담양군농업기술센터·농협한우개량사업소 업무협약 -

- 담양군은 17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담양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량암소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담양군은 장풍환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이학림 농협한우개량사업소장 등 관계자가 참여한 업무협약에서는 보급농가의 수태율 향상을 위해 수란우 관리 교육과 현장기술지원 등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교류를 약속했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군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내년부터 연간 고능력 수정란 200개 내외를 공급받아 한우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공급된 수정란에 대한 모든 정보는 농가에 제공되며, 수정란으로 생산된 송아지의 친자확인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 장풍환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한우개량사업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고능력 수정란 공급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한우개량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한우개량으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담양군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담양군



고흥군, 남녀 모두에게 좋은 고흥 석류 수매 한창

- 명품 석류 생산으로 농가 고부가가치 창출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웰빙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명품 석류수매를,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고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법인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 석류는 예로부터 여성들의 몸에 좋은 천연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피부노화 예방에 좋고, 남성들 또한 전립선 암 예방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고흥석류는 연중 풍부한 일조량과 온화한 기온으로 석류 재배 안전지로서 국내 다른 지역 및 이란산과 비교해 과피의 에스트로젠 및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과실이 크고 무거운 것이 특징이다.
- 현재 고흥군 석류 재배면적은 153ha로, 올해 석류 생산량은 3,470톤을 예상하고 있다.
- 이번에 수확한 석류 생과는 고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061 - 833 - 3689)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생과 구매 및 가공제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고흥군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고흥석류RIS사업, 고흥웰빙유자·석류 특구지정, 상생협력사업 등 고흥석류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 출처 : 고흥군



일본,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샤인 머스켓의 인기

- 고급포도로 잘 알려져 있는 샤인 머스켓이 일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고급 청과물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샤인 머스켓은 2014년과 비교해 가격이 50%가까이 떨어지며(한 송이 약780엔 ~ 980엔) 최근에는 일반 슈퍼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 여전히 일반 포도의 가격(약398엔 ~ 498엔)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이나 고농도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편리함에 소비자의 큰 지지를 얻고 있다.
- 외식산업에도 침투하고 있다. 스카이라크 홀딩스는 산하의 체인 패밀리 레스토랑, 바미안에서 2종류의 메뉴에서 샤인 머스켓을 사용하고 있고, 역시 체인 패밀리 레스토랑인 조나상에서도 파르페, 케이크 등 총 5종의 메뉴에서 샤인 머스켓을 채택하고 있다.
- 양쪽 모두 판매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호조의 배경으로는 △아이들에게도 껍질째 먹일 수 있다 △슈퍼에서의 판매증가로 지명도가 높아졌다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등을 꼽고 있다.
- 샤인 머스켓의 생산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에는 41도부현(都府県)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면적은 992ha, 집계를 시작한 2007년의 2ha에서 급격히 확대됐다. 거봉, 델라웨어와 같은 기존품종에서 전향이 진행되고 있다.

- 가장 유명한 산지인 나가노 현은 2018년 출하량이 23만 9천 케이스(1케이스 5kg)로 전년대비 6.5%가 증가했다. 출하량은 포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며 2017년산부터 거봉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 도쿄도에 의하면 도중앙도매시장의 샤인 머스켓의 입하량은 2017년에 2,692톤이며 기록을 시작한 2012년(464톤)의 5.8배가 늘었다.
- 시장관계자는 고급가게 뿐 아니라 중·소슈퍼마켓에서 거래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2018년에도 증가경향은 변함이 없으며, 전국과실 생산출하안정협의회에 의하면 노지물(6월 ~ 11월의 재배 물로 온실재배의 반대말)의 출하량은 7,876톤으로 전년대비 14%증가할 전망이다.
- 일본에서 개발된 고급 청포도 품종, 샤인 머스켓이 인기를 끌고 있다. 씨가 없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에게 먹기 편함과 맛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 수요가 증가하는 점과 재배하기 쉬운 이유 등으로 일본에서는 재배하는 곳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청과물유통에 정통한 관계자는 샤인 머스켓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급속한 재배 증가로 품질이 균일하지 못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 적절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고급 포도의 브랜드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며, 독자의 품질기준설정 등이 산지와 시장에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 샤인 머스켓은 한국에서도 급속도로 재배량이 증가하는 수출 유망품종 중 하나이다. 역사가 길지 않은 신품종이므로 고품질이 유지되어 안정적으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홍콩, 일본산 농식품 수입 가장 많아

- 일본산 식품은 줄곧 홍콩인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홍콩은 13년 연속 일본산 식품의 최대 수입시장이다. 일본의 한 언론사인 닛케이 중국어에 따르면 작년 홍콩에서 수입한 일본 농식품의 총액은 약 1,876억 엔(약 130억 홍콩달러)에 달한다. 이는 일본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또한 언론사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홍콩으로 수출되는 일본 농식품 총액은 전년 대비 17% 올라, 1천 1백 24억 엔 (약 78억 홍콩달러)에 달했다. 두 번째 최대 수입국인 중국(760억 엔)과 3위 수입국인 미국(650억 엔)을 훨씬 앞서는 수치이다.
- 뿐만 아니라 홍콩음식에 일본 식재료의 사용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본산 농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급 중국요리에는 일본해삼을 쓰거나, 명절에는 일본산 고급 과일을 선물하는 형태이다.
-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홍콩은 후쿠시마와 같은 5개현의 식품 수입을 일부 금지했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올해 7월 말부터 이바라키, 토치기, 지바 및 군마 4개현의 농산품에 대한 수입을 완화함으로써 야채, 과일, 우유 및 우유 음료 및 분유 수입을 허가하여 일본 농산물을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사점으로 홍콩 식품 시장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과거 원전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품질 신뢰를 쌓으며 이미지를 회복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일본산에 대응하여 다양한 판촉활동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10. 22. 시카고 선물거래소)

- 옥수수 선물가격, 기술적인 매도와 시장 간 스프레드 거래로 하락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3%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3세션 연속 하락 후 환매수로 인해 소폭 반등했다. 상품 펀드는 시카고 밀 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은 환매수의 위험이 남아있다. 미 남부 평야 적색경질밀 재배 지역의 비로 인해 재배는 늦춰졌지만 토양에 충분히 습기가 더해져 작황조건은 개선되었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1.0%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기술적인 매도와 대두 시장 간 스프레드 거래로 하락했다. 비로 인해 아이오와 일부 지역과 미네소타, 미저리의 야외작업이 늦어졌지만 주말은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돼 수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농림부는 농민들이 옥수수 파종 지역의 56%인 260만 ha에서 1,730만 톤을 수확했다고 전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8%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산 대두 수출 취소로 인해 하락했다. 미 농무부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민간 업체의 대두 18만 톤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발표 한 후 대두 선물가격은 하락했다. 또한 확인 되지 않은 목적지에 판매된 대두 12만 톤도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 국산 품종의 우수성 홍보와 종자기업의 수출 지원 기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씨앗,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전년보다 전시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 해외바이어 유치에 주력하였다.
- 전시장은 주제관, 산업1·2관, 체험관, 전시포 및 전시온실로 구성하였고, 기업의 비즈니스 장과 일반 관람객의 종자산업 이해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박람회의 핵심인 산업1·2관은 국내외 종자기업의 품종 및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의 제품 소개와 더불어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약 16개국, 6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제1회 박람회에서 업계의 호응이 컸던 시범재배 전시농장을 확대 운영하여 종자의 재배특성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참여를 통한 관심유도 및 미래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발족한 K-Seed 서포터즈가 전시작물 재배와 국내외 바이어 대상 안내와 홍보 역할을 수행한다.
- 박람회 기간 동안 관람객의 흥미를 돋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사항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익산역 - 익산터미널 - 김제시 주요 거점 등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 박람회 홈페이지(www.koreaseedexpo.com)를 통해 운행일정 확인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8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는 『2018 대한민국식품대전(KOERA FOOD SHOW, 이하 KFS)』을 10월 24(수)부터 10월 27(토)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참 맛있는 내:일(Taste Your Tomorrow)』란 슬로건으로 비즈니스의 장을 넘어 일반 관람객들도 식품산업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맛있는 내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로 준비했다.
- 식품기업에게는 판로개척과 식품트렌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람객에는 식품의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 식품대전에는 중소식품기업, 푸드테크·스타트업기업, 사회적기업 등 170여개 식품기업이 참가한다.
- 참가기업은 식품 트렌드별로 천연식품(Natural), 발효식품(Slow), 건강식품(Wellness), 디저트·음료(Pleasure), 간편식품(Convenience) 등 총 7개 테마에 맞추어 배치하여, 소비자들이 기호에 따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4차 산업혁명 등과 맞물려 식품산업과 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기업, 참신한 아이디어로 식품기업을 창업한 청년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푸드테크관도 눈여겨 볼만하다.
- 참여 식품기업의 국내외 판로활성화를 위한 바이어 상담회도 열린다. 10월 24일에는 해외 25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참가기업과 수출상담회(Buy Korea Food)를 개최하며, 10월 25일부터 27일에는 국내 백화점·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 구매담당자 150여명과 참가기업 간 국내바이어 상담회도 실시한다.

- 우리 식품의 역사와 현재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식품 100년史관과 농식품 관련 각종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홍보관도 마련된다.
- 우리식품 100년史관에서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이자 시대의 식문화로 자리 잡은 한국인의 인생식품부터 최근 식품트렌드인 건강·가정간편식까지 다양한 식품을 경험해 볼 수 있다.
- 또한, 전북 익산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수출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현장코칭상담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업투자상담, 식품기업 무료법률상담관, 식품명인관, 우수식품인증제도 홍보관 등 각종 식품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홍보관도 함께 운영한다.
- 식품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최신 트렌드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컨퍼런스도 개최된다.
- 10월 25일에는 100세 시대 글로벌 식품개발전략,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현황 및 나아갈 방향, HMR 상품개발 전략, 이커머스를 통한 농식품 국내시장 진출전략 등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 10월 26일에는 쿠팡, 식신 등 푸드테크 기업인이 강연하는 푸드테크 트렌드 세미나, 고성장 블루오션 식품소재 개발 및 상품화전략 등 각종 컨퍼런스와 함께 미래 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인 대학생들의 식품·외식산업 논문발표대회도 개최된다.
-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주요 식품트렌드로 자리잡은 편의점 제품을 활용한 나만의 레시피 공모전(10. 27.)과, 참여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푸드스타트업 모의 클라우드 펀딩대회(10. 26.)도 열린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렴한세상 - 임금에 대한 절의지킨 청백리 김인후 선생 일화



1543년 중종때, 김인후는 세자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세자는 그의 학식과 임팩에 반해 손수 그린 목죽도를 하사하였습니다. 세자가 즉위하자마자 돌아가시자 김인후선생은 벼슬을 떠나 필암서원을 세우고 인종의 목죽도를 모시며 후학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매년 기일이 되면 인종을 그리며 인종의 묘를 찾은 선생의 절의는 청빈한 삶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VOL. 206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